ACC, 한국 대표 국제회의 명소로 뜬다

예울마루&장도·10년후 그라운드 등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ACC 제공〉

10년후 그라운드 전경. 〈10년후 그라운드 제공〉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들이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뽑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울마루 & 장도, 10년후 그라운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모두 52곳으로 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3곳이 선정됐다.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말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갖고(Korea)’,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Unique)’,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Venue)’ 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명소를 뜻한다.

먼저 ACC는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다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ACC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와 마케팅 활동지원 등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와 별개로 ACC는 최근 유현준 건축가(홍익대 교수)가 최근 ‘한국에서 꼭 봐야하는 건축 TOP3’ 중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꼽아 화제가 됐다.

ACC에 따르면 10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 운영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문화전당을 소개하는 영상을 최근 게재했다.

유 교수는 영상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중심지이자 광주 중심에 지어지는 건축물이기에 처음부터 우규승 건축가가 눈에 띄지 않는 전략으로 설계했다”며 “훌륭한 건축은 배경으로 사라지는 건물이자 사람의 관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물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문화전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중심부에 있지만 선큰 광장으로 내려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다른 건축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스테인리스스틸을 재료로 사용해 빛을 반사시켜 광장이 더욱 밝은 느낌이 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아시아의 다양한 시각이 한데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장’”이라며 “문화자원을 모티브로 그 결과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전 세계에 유통하는 문화발전소”라고 말했다.

여수 예울마루 & 장도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예울마루 & 장도는 3년간 코리아유니크베뉴의 자격을 부여받고 총 52개소의 코리아유니크베뉴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MICE 개최 명소로 해외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울마루에는 시적이고 감성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문화예술의 너울이 넘치고 전통가옥 마루처럼 편안함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처럼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문화행사와 함께 회의·전시가 진행된다.

양림동의 10년후 그라운드는 광주의 민간공원 최초로 이번에 코리아유니크베뉴에 선정됐다. 개관한지 불과 3년 만에 선정됨으로써 한국민속촌, 남이섬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베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됐다. 특히 골목마다 문화공간과 미술관이 밀집한 양림동의 특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는 “최근 양림골목비엔날레 성료에 이어 10년후그라운드의 코리아유니크베뉴 선정은 양림동 마을에 기반한 새로운 마이스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마을 커뮤니티를 비롯해 예술인,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세 문화명소는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코리아 유니크베뉴 52선 업무협약식’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상여인’

강인하고 따뜻했던 우리시대 어머니

박남 개인전, 15일까지 제이94갤러리

예전에는 행상을 하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머리에 큼지막한 짐을 이고 행상을 하러 다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어머니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사회는 이만큼 발전했다 할 수 있다.

박남 작가의 ‘행상 여인’들은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핍진하게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6·25로 이어지는 격변기에서 어머니들은 가장의 역할까지 짊어지며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왔다.

제이94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박남전은 어머니들의 강인함과 따뜻한 모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특히 ‘행상여인’ 작품들에서는 삶의 무게와 이를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고뇌의 흔적이 읽혀진다.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감과 꾸밈이 없는 화폭은 순수한 열정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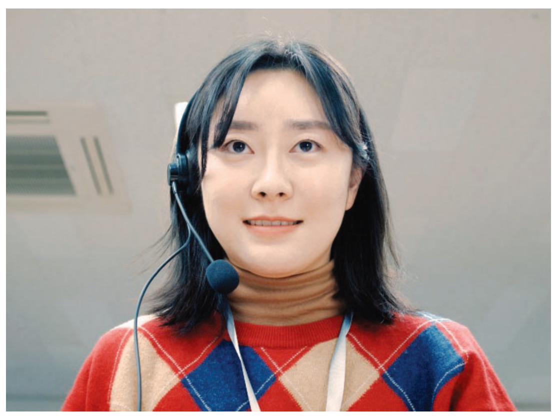
무엇보다 작가는 어려움에 처하면 강해지는 한국 여인들의 특징을 잘 포착해 형상화했다. 그림 속 여인들은 다시 어려운 시대에 들어선 오늘의 많은 이들에게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아울러 작가 또한 오랫동안 천착해온 ‘행상여인’을 매개로 우리시대 전통 어머니상을 아름답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 같다.

한편 박남 작가는 광주사범학교와 서라벌예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갤러리 K 초대전, 뉴욕 초대전, NIAF 남송미술제, 북경초대전, 서울아트페스티벌 등 개인전과 묵우회 회원전, 국전작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고문, 무진회 고문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젠더 브런치 영화제’로 초대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8~27일 브런치 무비 토크·토크 콘서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힘찬이는 자라서’

브런치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시대 젠더 담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 이하 재단)은 ‘젠더 브런치 영화제’를 18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재단 3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브런치와 함께 젠더이슈가 담긴 영화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브런치 무비 토크’(18일, 20일, 24일 오전 11시 30분)와 감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토크 콘서트’ 두 종류로 꾸려진다.

먼저 브런치 무비 토크는 18일 ‘젖꼭지 3차대전(2020)’으로 시작한다. 작품의 제목은 다소 난해하지만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단편상, 제22회 제주여성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어 관객들의 이목을 끈다. 작품 내용은 ‘노브라’ 연예인의 신체부위가 방송화면에 나오자 모자이크하라는 부장의 명령을 받고 고뇌하는 PD 용의 에피소드가 주가 된다.

20일에는 문제작 ‘힘찬이는 자라서(2022)’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 작품은 고교시절부터 친구였던 정희, 소연이 ‘힘찬이’가 등장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논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 힘찬이가 남성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가부장적 관념의 재생산을 살피고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한다.

24일에는 ‘사랑합니다 고객님(2021)’이 열기를 이어 받는다. 콜센터 상담사 수연이 진상고객 미경을 만나 복수하려 하지만 미경 또한 감정폭력의 굴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작품은 사회 초년생들이 처한 폭력의 악순환을 연대의 시선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러면서‘여성’으로서 당면한 성희롱 문제 등을 여실히 담아낸다.

아울러 27일에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재단에서 ‘행인(2021)’, ‘고마운 사람(2020)’의 허지은 감독이 관객들과 만난다. 엄마에게 딸이 전하는 커밍아웃에서 출발하는 작품 ‘고마운 사람’과 베트남 여성과 촬영을 기다리는 행인들의 만남을 담아낸 ‘행인’에 대해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 무료, 네이버 폼으로 참가 신청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꽃에 대한 사유’

고명인 순회전, 25일~8월5일 전남대 박물관

‘탄생1’

꽃을 모티브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시가 열린다.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은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고명인 작가의 ‘Flowerniverse’ 순회전을 펼친다.

고 작가의 이번 전시는 꽃에 대한 사유와 질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꽃을 매개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예술적 도전인 셈이다. 고 작가는 영감과 치유를 선사해주는 꽃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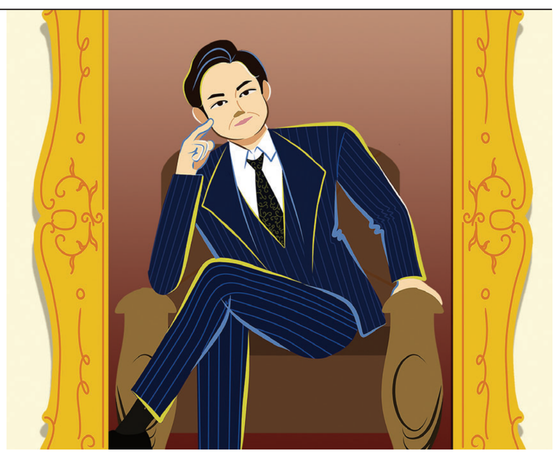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며 이번 전시 후에는 순천대 박물관(8월7일~8월18일)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고 작가 초대전은 목포대 박물관(7월 10일~7월 21일)에서 진행된 바 있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닐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띠는 꽃을 모티브로 인간관계는 물론 우주의 원리까지 다채롭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죤마니 쯔비요비치 박사’가 전하는 풍자와 해학

극단 담장이, 15~16일 미로센터 2관


‘죤마니 쯔비요비치 박사’ 〈담장이 제공〉

물질만능주의를 주제로 삼는 대부분의 연극은 비극으로 점철되기 마련이다. 브레히트의 ‘빵집’부터 최근 개봉한 아서 밀러 원작 ‘세일즈맨의 죽음’까지 알려진 작품 중 비극이 많다.

극작가 ‘브라니 슬리브누쉬치’의 희극 ‘죤마니 쯔비요비치 박사’가 15, 16일(오후 2시·오후 7시) 미로센터 2관(무등 갤러리 4층)에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유쾌하면서 날카로운 이번 작품은 20세기 세르비아의 희곡작가로 알려진 극작가 브라니 슬리브누쉬치의 작품을 원작으로 재탄생했다. 청년기획자이자 배우 김민석(31)씨가 기획·제작했으며 신생 극단 ‘담장이’가 연기해 의미를 더한다. 한국에서는 번역가 이상렬의 번역으로 2006년 극단 ‘화동연우회’가 초연했다.

에피소드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담아낸다. 큰 상회를 운영하던 재벌가의 후계자 ‘지보타 쯔비요비치’는 아들 밀로라드와 함께 찬란한 미래를 그리며 살아간다. 지보타는 아들을 위해 청년 벨리미르와 스위스에서 학위를 대신 받는 것을 거래한다. 얌전히 학위만 취득해 온 줄 알았던 벨리미르가 클라라라는 여성과 아들 ‘죤마니’까지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공연은 1930년대 물질만능에 빠진 세르비아의 격동기를 풍자하는 한편 현대인들에게도 성찰의 단초를 제공한다.

김선경 메인 연출은 “슬리브누쉬치의 공연을 재탄생시킨 이번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유쾌한 공연을 통해 많이 웃고 스트레스도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1만2000원, 러닝타임 120분. 예매는 네이버 폼으로 진행.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여성단체협의회합창단, 세계합창대회 1위

국제대회 첫 출전 입상

광주여성단체협의회합창단이 강릉에서 열린 세계합창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일 강원도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합창단이 시니어 동성콰이어 부문에서 은메달(금메달 수상자 없음)을 수상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합창대회 중 하나로 꼽힌다. 총 34개국 324팀, 8천여 명이 참여해 평화와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 합창단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국제대회 첫 출전임에도 입상해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합창단은 2015년 창단해 정진희 단장, 박병국 지휘자, 남영숙 단무장, 이유정 반주자 등이 이끌어 왔다.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속한 60여 명의 여성들이 함께 목소리를 담아 왔다. 그동안 정기연주회, 광주합창제, ACC 기획공연,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음악예술 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광주여성단체협의회합창단만의 매력을 선사해왔다.

정진희 단장은 “올해 합창대회의 주제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처럼 단원들은 하나의 꿈을 꾸며 대회에 임했다”며 “광주 시민들에게도 행복한 선율을 선사하고 싶다. 또한 그에 걸맞는 국제대회가 광주에서도 많이 열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